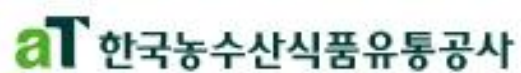


일본 키위 시장현황

2018. 05



[목 차]

I. 생산현황	3
1. 재배현황	3
2. 품종정보	5
II. 유통현황	7
1. 유통형태	7
2. 도매시장 유통현황	7
3. 주요 판매처 및 제품분석	9
4. 가격분석	13
5. 포장 및 판매방식	16
6. 표준규격	18
III. 소비현황	20
1. 소비규모	20
2. 소비동향	21
IV. 수입현황	24
V. 통관제도	27

I. 생산현황

1. 재배현황

□ 일본 키위의 생산량과 수확면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키위 생산량은 2014년 3만 2,000톤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2016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7.14% 하락한 2만 6,000톤으로 나타남
 - 동년 전 세계 키위 생산량은 427만 5,000톤으로 일본은 0.6%를 차지함
- 키위 수확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수확면적은 2007년 2,420ha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1,875ha로 집계됨
- 키위 생산량 및 수확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일본농가의 고령화와 PSA¹⁾의 발병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 농림수산업성(農林水産省)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농업 종사자 수는 2017년 437만 5,000명을 기록하였으며 고령자(65세 이상)의 비중은 41.7%인 것으로 집계됨
 - 2014년 기존 PSA보다 병원성이 더 높은 PSA3이 발병하면서 키위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침

〈표 1-1〉 일본 키위 생산량 및 생산면적(2007~2016년)

(단위: ha, 천 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확면적	2,420	2,380	2,370	2,300	2,250	2,240	2,170	2,150	2,090	1,875
생산량	33	38	35	27	26	30	30	32	28	26
세계생산량	2,550	2,748	2,793	2,844	2,909	3,054	3,464	3,838	4,151	4,275

* 출처: FAO

□ 키위 작기 및 출하기

- 키위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보통 1년 정도 소요됨
 - 일본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12월에서 3월 사이에 묘목을 심어 재배하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확함
- 일본 내 키위는 주로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출하됨
 - 일본 과일 관련 정보제공사이트 Kudamononavi.com에 따르면 일본산 헤이워드¹⁾는 11월에서 5월 사이, 사누키 골드 품종은 10월 중순 이후에 유통됨

1) 키위나무의 덩굴과 잎사귀 등에 궤양을 일으켜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 2010년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확산되고 있음

□ 주요 산지별 재배현황

- 일본산 키위의 수확량 기준 주요 산지는 에히메현(愛媛県), 후쿠오카현(福岡県), 와카야마현(和歌山県),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시즈오카현(静岡県)임
- 키위 상위 3개 산지인 에히메현, 후쿠오카현, 와카야마현은 아열대습윤기후로 키위와 같은 열대과일과 감귤류 등을 재배하기 적합함
 - 1위 산지인 에히메현의 2016년 수확량은 전체 수확량의 약 20%인 5,230톤으로 집계됨
 - 동년 2위, 3위 산지인 후쿠오카현과 와카야마현의 수확량은 각각 4,120톤, 3,810톤으로 나타남

<표 1-2> 키위 주요 산지별 수확량 및 비중(2016년)

(단위: ha, 톤, %)

지역	재배면적(ha)	10 a 당 수확량(kg)	수확량(톤)	출하량(톤)	비중(%)
합계	2,040	1,250	25,600	21,800	100.00
에히메현(愛媛県)	376	1,390	5,230	4,930	20.43
후쿠오카현(福岡県)	288	1,430	4,120	3,860	16.09
와카야마현(和歌山県)	151	2,520	3,810	3,500	14.88
가나가와현(神奈川県)	137	1,370	1,880	1,720	7.34
시즈오카현(静岡県)	122	1,120	1,370	1,040	5.35
군마현(群馬県)	75	1,450	1,090	741	4.26
도치기현(栃木県)	63	1,510	951	675	3.71
사가현(佐賀県)	60	860	516	470	2.02
야마나시현(山梨県)	55	1,810	996	840	3.89
가가와현(香川県)	51	1,100	561	465	2.19
오이타현(大分県)	44	1,100	484	417	1.89

* 주: 비중은 전체 수확량 대비 지역별 수확량 비중

*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 재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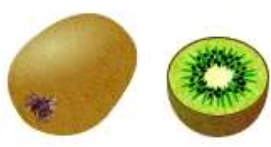



- 키위는 다래나무과의 낙엽덩굴식물로 일반적으로 모종을 심은 뒤 3년 후에 열매를 수확하는 방식으로 재배함
 - 일본 동북쪽 등 기온이 낮은 지역은 2월에서 3월 사이, 서쪽 등 비교적 따뜻한 지역은 10월에서 12월 사이 모종을 심음
- 1~2년생 묘목을 구매하여 재식하는 방식으로 재배되기도 함
- 키위 재배 시 PSA에 걸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PSA는 주로 3~4월경 나뭇가지의 상처에 균이 침투하여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나뭇가지에 상처가 나면 단면에 살균제를 도포해야함

2. 키위 품종

□ 일본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은 헤이워드, 제스프리 골드, 레인보우 레드, 코미도리, 골든킹 등 8종

- 일본에서 재배되는 키위 품종 중 99%가 헤이워드 품종인 것으로 집계됨²⁾
 - 2016년 일본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헤이워드 품종의 재배면적은 1,349ha로 주요 품종 재배면적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산 헤이워드는 11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유통되며 그 외 5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뉴질랜드산 헤이워드 품종이 주로 유통
 - 헤이워드 품종은 단맛과 신맛의 밸런스가 좋은 것이 특징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 재배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제스프리 골드의 재배면적은 114ha로 헤이워드의 뒤를 이음
 - 뉴질랜드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Zespri)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일본에서는 에히메현(愛媛県)과 사가현(佐賀県)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 제스프리 골드는 헤이워드보다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

<표 I-3> 일본 키위 주요 품종

종 류	사 진	특 징
헤이워드 (ハイワー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은 100g 전후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품종 · 단맛과 신맛의 밸런스가 좋음 · 일본산 제품은 11월에서 이듬해 5월에 많이 유통
제스프리 골드 (ゼスプリゴール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랗고 단맛이 강한 품종으로 골드키위라고 불리기도 함 · 에히메현(愛媛県), 사가현(佐賀県) 등에서 생산
레인보우 레드 (レインボーレッ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육 중앙에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품종 · 크기는 비교적 작고 신맛보다 단맛이 강함 · 수확시기는 10월 이후
코미도리 (こうりょ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워드의 개량품종 · 중량은 100g 전후이며 껍질에 털이 많은 것이 특징 · 가가와현(香川県), 야마나시현(山梨県) 등에서 11월 이후 수확됨

2) 농촌진흥청, 「참다래(한라골드) 일본 수출 매뉴얼」, 2016.10

<p>사누키 골드 (さぬきゴール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은 160~180g으로 비교적 크며 당도가 매우 높음 • 가가와현에서 재배
<p>산미도리 (さんりょ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은 100g 전후로 껍질에 털이 거의 없음 • 가가와현에서 주로 재배되지만 생산량이 적어 일본 내에서는 거의 유통되지 않음
<p>애플 키위 (アップルキウ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은 150g 전후로 비교적 큼 • 신맛이 적고 단맛이 많은 품종 • 일본 내 시즈오카현(静岡県)에서 주로 재배되며 10월 중순 출하됨
<p>베이비 키위 (ベビーキウ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cm 길이의 작은 키위로 주로 미국과 칠레에서 수입됨 • 껍질이 얇고 털이 없기 때문에 껍질 채로 먹을 수 있음
<p>선골드 (サンゴール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제스프리가 새롭게 개발한 골드키위로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 • 신맛을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선호

* 출처: 일본 과일 관련 정보제공사이트 Kudamononavi.com(www.kudamononavi.com)

- 평균 도매가격 역시 소폭 하락 추세로 전년대비 99% 수준을 기록함
- 수입산 키위 도매물량은 2016년 전년대비 98%, 도매시장 규모(금액)는 103% 수준이었음
- 일본 주요 도매시장 내 수입산 키위의 총 도매물량은 4만 5,502톤, 도매 시장 규모(금액)는 231억 7,200만 엔(한화 약 2,259억 5,831만 원)이었으며, 평균 도매 가격은 509엔/kg(한화 약 4,963원/kg)을 나타냄
-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106% 수준을 기록하여, 일본산과 달리 상승 추세를 보임

〈표 II-1〉 2016년 일본 키위 도매시장 규모 및 평균 가격(총계)

(단위: 도매물량-톤, 도매시장 규모-백만 엔, 평균 도매가격-kg/엔)

	주요 도시의 도매시장 총계			전년대비		
	도매물량 (톤)	도매시장 규모 (백만 엔)	평균 도매가격 (엔/kg)	도매물량 (%)	도매시장 규모 (%)	평균 도매가격 (%)
일본산	20,635	10,406	504	95	95	99
수입산	45,502	23,172	509	98	103	106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 2016년 수입산 키위의 월별 도매물량은 월평균 2,612톤, 도매시장 규모(금액)는 14억 1,100만 엔(한화 약 137억 5,916만 원)이었으며, 월평균 도매가격은 515엔/kg(한화 약 5,022원/kg)
- 수입산 키위의 월평균 도매물량이 가장 높은 달은 5월로, 5,221톤 규모를 보임
- 수입산 키위의 월평균 도매시장 규모(금액)이 가장 높은 달은 5월로, 30억 4,100만 엔(한화 약 296억 5,386만 원) 규모를 나타냈으며, 초여름~여름에 유통량 및 도매시장 규모가 확연히 증가세를 나타냄
- 월평균 도매가격의 경우, 4월에 619엔/kg(한화 약 6,036원/kg)으로 최고가를, 1월에 450엔/kg(한화 약 4,388원/kg)으로 최저가를 기록

〈표 II-2〉 2016년 수입산 키위 월별 도매시장 규모 및 평균 가격

(단위: 도매물량-톤, 도매시장 규모-백만 엔, 평균 도매가격-kg/엔)

1월			2월			3월			4월		
도매 물량	규모	평균 가격	도매 물량	규모	평균 가격	도매 물량	규모	평균 가격	도매 물량	규모	평균 가격
781	352	450	235	109	462	259	120	463	2,070	1,280	619
5월			6월			7월			8월		
5,221	3,041	582	5,093	2,934	576	4,374	2,408	551	3,840	2,020	526
9월			10월			11월			12월		
3,651	1,893	518	2,305	1,135	493	1,883	885	470	1,640	761	464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표 II-3> 2016년 수입산 키위 월별 도매시장 규모 및 평균 가격 추이
 (단위: 도매물량-톤, 도매시장 규모-백만 엔, 평균 도매가격-kg/엔)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3. 주요 판매처 및 제품 분석

□ 키위는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 과일 전문 판매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

- 키위는 주로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을 통해 유통
 -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키위는 플라스틱 팩(4~10개입)에 담겨진 것이 일반적
 -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키위 한 팩의 가격은 298~398엔(한화 약 2,929~3,912원)
- 베이비 키위 등 수요와 유통량이 비교적 적은 품종은 과일 전문 판매점이나 수입식품을 많이 취급하는 코스트코(Costco)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됨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키위는 일반적으로 1kg 이상의 대용량임
 - 일본 대표 전자상거래 사이트 라쿠텐(Rakuten)에서 판매되고 있는 키위는 상위 5개 품목 중 4개 품목이 뉴질랜드산 골드키위로 나타남

<그림 II-2> 라쿠텐 주간 인기 키위제품

1位 STAY		【送料無料】ゼスプリ "サンゴールドキウイ" 22~27玉 約3kg 【予約 4月下旬以降】 【楽ギフト包装】 ★★★★★ レビュー (281件) 🏠 くらし快運部~母の日父の日お中元	3,980円	🛒 買い物かご ★ お気に入り
2位 STAY		【送料無料】遅れてごめんね!母の日ギフト"ゼスプリ サンゴールドキウイ" 超大玉 22玉前後 約3kg カーネーション... ★★★★★ レビュー (3件) 🏠 くらし快運部~母の日父の日お中元	3,980円	🛒 買い物かご ★ お気に入り
3位 STAY		【送料無料】ゼスプリ ニューージーランド "サンゴールドキウイ" 20玉 約2kg 【予約 4月下旬以降】 【楽ギフト包装】 ★★★★★ レビュー (17件) 🏠 くらし快運部~母の日父の日お中元	2,980円	🛒 買い物かご ★ お気に入り
4位 UP		ゼスプリキウイフルーツゴールドキウイ20玉 (約2kg) ★★★★★ レビュー (9件) 🏠 直産フルーツ・果実館TOKIO	2,980円	🛒 買い物かご ★ お気に入り
5位 STAY		【★5/17以降発送】★石綿さんの無農薬・無肥料キウイ 約5kg (Sまたは2S) ※有機JAS ※55~70個前後 ★★★★★ レビュー (173件) 🏠 自然農産のたいよう	3,996円	🛒 買い物かご ★ お気に入り

* 주: 2018년 5월 2주차 기준

* 출처: 라쿠텐 홈페이지(<https://ranking.rakuten.co.jp>)

□ 일본 내 주요 소매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키위는 대부분이 수입산인 것으로 조사됨³⁾

- 현지조사 결과 일본 내 유통 중인 키위의 경우 수입산이 약 92.1%, 일본산이 7.9%를 차지
 - 수입산의 경우 100%가 뉴질랜드산으로, 한국산을 포함한 칠레, 이탈리아 등 타국산은 찾아볼 수 없었음
 - 4월에서 12월경에는 뉴질랜드산 키위가 주로 유통되며, 뉴질랜드산 키위의 유통량이 적은 12월부터 4월까지의 일본산 키위가 유통됨
- 뉴질랜드산 키위 중에서도 ‘제스프리’ 브랜드의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
 - 해당 브랜드는 다양한 광고물 등을 통해 매장에서 활발히 홍보되고 있어 일본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 일본산 키위의 경우 일부 가나가와, 와카야마 현 등을 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3) 2018.5, 일본 현지조사 결과(백화점, 슈퍼마켓, 중대형마트, 식료품점 등 총 13개 소매점 내 27개 키위 제품 조사)

- 5월 현재 유통량은 미미하며, 별도의 브랜드가 없이 ‘일본산’ 으로만 판매되고 있음

<그림 II-3> 일본 내 유통 중인 수입산, 일본산 키위



* 출처: 현지조사자료(2018.05)

□ 일본 수입산 키위 시장을 독점하는 제스프리 키위

- 제스프리 그린 키위의 경우 매장 내 홍보물 등을 통해 당도와 산미가 조화롭고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높은 장점을 홍보하고 있음
- 과거 신 맛이 강한 키위와 달리 새로운 재배 방식을 도입하여 키위의 당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리고 있음
- 또한 신맛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하여 자체 개발한 ‘기간 한정’의 단 맛이 강한 그린 키위’ 임을 내세운 경우도 있음

<그림 II-4> 기간한정으로 판매되는 제스프리 고당도 그린 키위



* 출처: 현지조사자료(2018.05)

- 제스프리 골드 키위는 황금색의 빛깔에 과즙이 넘치는 과육으로 산미가 적어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먹기 쉬우며, 비타민 C가 다른 과일대비 풍부하여 영양 공급원으로써 좋은 과일로 홍보되고 있음

- 특히 현지 매장에서 활발히 판매 중인 제스프리 ‘선 골드 키위’의 경우 일본인의 입맛에 맞추어 개발된 키위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고당도를 자랑하는 제품으로 기존 키위보다 묵직하고 둥근 모양을 나타냄
- 뉴질랜드의 키위 브랜드인 제스프리는 2017년 7월 도쿄에 키위 판매 팝업스토어(Pop-up Store)인 ‘제스프리키위 헌트(Zespri Kiwi Hunt)’를 선보임
 - 해당 점포는 2017년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정적으로 오픈하였으며 해당 점포에서는 키위와 키위파르페 등 다양한 키위 디저트도 함께 판매함
 - 오픈 마지막 날에는 200여 명의 고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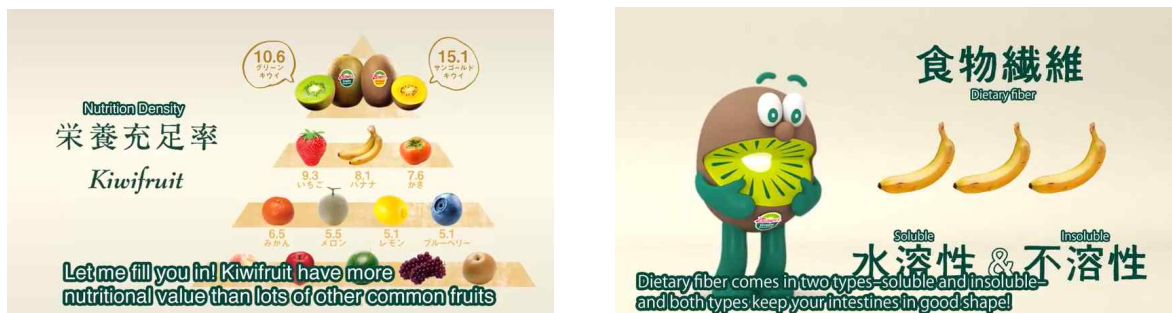
<그림 II-5> 제스프리 매장 및 키위제품



* 출처: 일본 라이프매거진 T-SITE(<http://top.tsite.jp>), 시부야 경제신문(www.shibukei.com)

- 오프라인 매장 외에도 TV 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키위의 건강상 이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음
 - 2016년 키위가 미용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는 TV 광고를 내보냄
 - 동년 해당 광고에 등장한 ‘키위 과일 형제’ 캐릭터는 일본 디자인진흥원(Japan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에서 수여하는 ‘Good Design Award⁴⁾’의 캐릭터 상을 수상함

<그림 II-6> 제스프리 TV 광고



* 출처: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유튜브(www.youtube.com/channel/UCgXWzi7UEZZyRqgOO5pPhQA)

4) 일본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함

□ 일본산 키위는 ‘안전성’ 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음

- 가나가와(神奈川), 와카야마(和歌山) 등의 산지에서 재배된 일본산 그린 키위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국내 농가 직송의 신선한 제품으로 제철과일로 홍보되고 있음
 - 또한 미네랄과 영양가가 높아 피부 및 건강에 유익함을 홍보하고 있음
- 해외 배송으로 유통기간이 긴 수입산 키위 대비 무농약, 화학비료, 보존제 등이 배재된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

4. 가격분석⁵⁾

□ 유통채널별 키위의 평균 가격은 백화점의 평균 가격이 가장 높고, 식료품점의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음

- 일본 현지조사 결과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키위의 평균 가격은 개당 249엔(한화 약 2,438원)으로 타 채널 대비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채널의 경우 개당 199~378엔(한화 약 1,948~3,701원)의 가격대로 오오다마(크기가 큰 과일 지칭)의 고급 선물용 제품의 경우 378엔(한화 약 3,701원)의 높은 가격대에 키위가 판매되는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판매되어 선택권을 높이고 있음

<그림 II-7> 이세탄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가의 키위



* 출처: 현지조사자료(2018.05)

- 중대형 마트의 경우 개당 평균가격은 127엔(한화 약 1,243원)
 - 43엔(한화 약 421원)의 저렴한 제품에서부터 오오다마 기준 215엔(한화 약 2,105원)의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어, 백화점 다음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5) 2018년 5월 현지조사 기준

- 주거지에서 접근성이 높은 슈퍼마켓의 경우 평균 가격은 122엔(한화 약 1,194원)
 - 오오다마 기준 개당 80~171엔(한화 약 783~1,674원)의 가격대에 키위가 판매되고 있으며 백화점, 중대형 마트 대비 가격 및 제품 선택의 폭이 적은 편임
- 식료품점의 경우 개당 99엔(한화 약 969원)의 가격대로 가장 저렴하게 판매됨
 - 그러나 판매되는 제품 종류가 1개 이하로 가격 선택의 폭이 제한적임

〈표 II -4〉 키위 유통채널별 평균가격

(단위: 엔)



* 출처: 현지조사자료(2018.05)

〈표 II -5〉 키위 유통채널별 가격대 및 평균가격

(단위: 엔)

백화점 점포명		그린키위	골드키위	그린 키위 오오다마	골드 키위 오오다마
백화점	게이오 백화점	224.5	233	-	-
	이세탄 백화점	270	378	-	-
	오다큐백화점	333	243	-	-
	백화점 채널 평균	275.8	284.7	-	-
슈퍼마켓	산페이 스토어	88	-	-	-
	마루에츠	98	149	-	-
	산토쿠	80		138	-
	COOP	85	105	-	-
	다이에이	107	166	-	-
	슈퍼마켓 채널 평균	91.6	140	138	-
중대형마트	AEON	95	-	-	170
	산와	115	-	215	215
	중대형마트 채널 평균	105		215	193
식료품점	코타와리야	99.3	-	-	-
	야오토쿠	99.3	-	-	-
	식료품점채널평균	99.3	-	-	-
전 채널 평균		143	212	177	193

* 주 1: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마트, 식료품점 14개 매장, 27개 제품 대상 조사 결과

* 주 2: 키위 1개당 평균가격 산출

* 출처: 현지조사자료(2018.05)

□ 그린키위에 비해 골드키위의 판매가격이 높음

- 골드키위 제품은 평균 178엔(한화 약 1,743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린 키위는 평균 130엔(한화 약 1,273원)에 판매됨
 - 스위트 그린 키위, 골드 키위와 같이 당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크기가 큰 키위를 칭하는 ‘오오다마 키위’ 제품은 골드/그린에 상관없이 평균 232엔(한화 약 2,271원)에 판매되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오오다마 키위는 날개, 3~5개 들이 포장으로도 판매되는 일반 키위들과는 달리, 날개로만 판매되는 경우가 대다수
 - 별도의 과일망으로 개별 포장해 상처발생을 방지하고 고급감을 더하여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표 II-6〉 키위 품목별 평균가격



* 출처: 현지조사자료(2018.05)

〈표 II-7〉 키위 품목별 전체 가격대, 평균가격, 저/중/고가 분석

(단위: 엔)

	그린 키위			골드 키위			오오다마 키위		
전체 가격대	43~216			140~216			138~378		
평균가	130			178			232		
저/중/고 가격대	저가	중가	고가	저가	중가	고가	저가	중가	고가
	140-165	166-190	190-215	43-100	101-157	158-216	138-218	219-299	300-378

* 주 : 백화점, 슈퍼마켓, 중대형마트, 식료품점 14개 매장,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함

* 출처: 현지조사자료(2018.05)

□ 원산지별 가격 비교 시 뉴질랜드산 제품이 일본산 제품에 비해 평균 가격이 높음

- 오오다마 제품을 제외한 뉴질랜드산 그린, 골드키위의 평균 가격은 154엔(한화 약 1,508원)으로, 최소 80엔(한화 약 783원)에서 최대 216엔(한화 약 2,115원)에 판매되고 있음
- 반면 일본산 그린, 골드키위는 최소 43엔(한화 약 421원)에서 최대 123엔(한화 약 1204원)으로 판매되어 평균가격은 89엔(한화 약 871원)으로 산정됨
- AEON 마트에서 판매 중인 개당 43엔(한화 약 421원)의 제품은 일본산 그린 키위는 가나가와의 소규모 농원에서 재배된 제품(할인 제품이 아님)으로 인지도 및 고품질을 내세우는 제스프리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음

5. 포장 및 판매방식

□ 수입산 키위의 경우 낱개 및 3~8개 들이 단위로 판매되고 있음

- 수입 키위의 경우, 3~8개들이 단위로 포장 판매되고 있으며 낱개로도 판매되고 있음
- 포장재는 플라스틱 팩, 종이접시, 플라스틱 바구니, 비닐 주머니 등 다양한 용기가 사용됨
- 오오다마 제품의 경우 제품에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낱개별로 과일망 포장을 사용하여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편

<그림 II -8> 일본 내 판매 중인 수입산 키위의 포장형태



* 출처: 현지조사자료(2018.05)

□ 일본산 키위의 경우 4~6개 들이 단위로만 제품을 판매 중

- 현지 조사 매장에서는 날개로도 판매되는 뉴질랜드산과 달리 일본산의 경우 날개 판매는 없었으며, 4~5개 들이의 포장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음

<그림 II-9> 일본산 키위의 포장형태



* 출처: 현지조사자료(2018.05)

□ 뉴질랜드 제스프리 제품의 경우 매장 내 홍보물을 비치한 경우가 다수

- 수입 유통 중인 키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스프리 키위는 제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물을 매장에 비치
 - 홍보 인형, 브랜드 설명도 등을 매장에 비치하고, 제품에 제스프리 제품임을 알아 볼 수 있는 브랜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음
- 반면 일본산의 경우 별도의 홍보물을 비치한 경우는 없었으며, 외부 포장재 역시 영문으로 되어 있어, 일본산임을 알아보기 쉽지가 않음

<그림 II-10> 소매매장에 비치된 제스프리 키위 홍보물



* 출처: 현지조사자료(2018.05)

6. 표준규격⁶⁾

□ 품질 구분 및 중량기준

- 일본 키위 품질 공통규격은 ‘구슬 모음’, ‘중불량품’, ‘경불량품’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뉨
 - ‘구슬 모음’은 크기가 상이하지 않고 고른 키위의 등급임
 - ‘중불량품(또는 중결점)’은 다음의 문제를 가진 등급임
 - 헤이워드, 香線(향녹) 등의 품종이 서로 다른 것
 - 일부분이 부패 변질
 - 일부분이 병해충 피해
 - 일부분이 상해(잘라진 상처, 베어진 상처, 압력에 의한 상처 등이 있는 것, 단 손상이 가벼운 것은 제외)
 - 경불량품에 속하나 그 단점 정도가 특히 두드러지는 경우
 - ‘경불량품’은 다음의 문제를 가진 등급임
 - 형상 불량 또는 껍질에 일부 상처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의 피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기타 다른 단점 정도가 경미한 것

〈표 II-8〉 일본 키위 품질규격

등급명칭 \ 사항	수(秀)	우(優)
구슬 모음 (玉ぞろい)	다른 크기로 구별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고 고른 것	좌측과 동일
중불량품	섞여 있지 않음	좌측과 동일
경불량품	섞여 있지 않음	대체로 섞여 있지 않음

* 주: ‘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상품성을 가지는 것은 양(良)으로 명명하여 출하할 수 있음

* 출처: 일본 농림수산부

- 1개 과실의 등급기준은 과실의 형상, 병충해, 상해 등 상태에 따라 ‘수’, ‘우’로 분류됨

〈표 II-9〉 일본 키위 과실 등급기준

등급명칭 \ 사항	수(秀)	우(優)
형상	품종 고유의 형상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형상이 뛰어난 것
햇빛에 탐	눈에 띄지 않는 것	심하지 않은 것
병충해	피해가 없는 것	경미한 것
상해	깊은 상처·자상·압상 등이 거의 없는 것	경미한 것
오염	눈에 띄지 않는 것	심하지 않은 것
세로 상처	눈에 띄지 않는 것	심하지 않은 것
기타 결점	거의 없는 것	심하지 않은 것

* 출처: 일본 농림수산부

6) 니가타현 청과물 출하규격 기준

- 중량 기준은 5가지 계급으로 나뉨
 - 1봉지 단위 중량은 3.4~10kg을 말함

〈표 II-10〉 일본 키위 중량기준

계급	1개 과실의 중량 (g)
3 L	145이상
2 L	130이상-145미만
L	115이상 130미만
M	103이상 115미만
S	95이상 103미만

* 출처: 일본 농림수산부

- 포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골판 상지로 하고 내장재료는 청결한 것으로 하며 완충효과가 양호한 것을 이용해야 함
 - 상자크기의 길이 및 폭 재는 법은 상기에서 $\pm 10\text{mm}$ 범위 내로 하며, 깊이 재는 법은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함

〈표 II-11〉 일본 키위 포장상자 기준

	중량 기준(kg)	길이(mm)	폭(mm)	깊이(mm)
트레이팩 들이	3,4	410	330	60

* 출처: 일본 농림수산부

- 내장재료는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함

〈표 II-12〉 일본 키위 내장재료 기준

구멍 수	구멍의 장경(長徑)	구멍의 단경(短徑)	구멍의 깊이
24	83	53	35
27	82	51	37
30	75	50	34
33	73	50	34
36	65	48	31

* 출처: 일본 농림수산부

III. 소비현황

1. 소비규모

□ 일본의 가구당 연간 키위 소비금액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가구당 연간 키위 소비금액은 1,380엔(한화 약 1만 3,473원)으로 이는 2009년 860g 대비 60.46% 증가한 수치임
- 키위의 가구당 연간 소비금액은 전체 과일 소비금액인 3만 3,676엔(한화 약 32만 8,775원)의 4.1%를 차지함

〈표 III-1〉 일본 연간 가구당 키위 소비금액(2009~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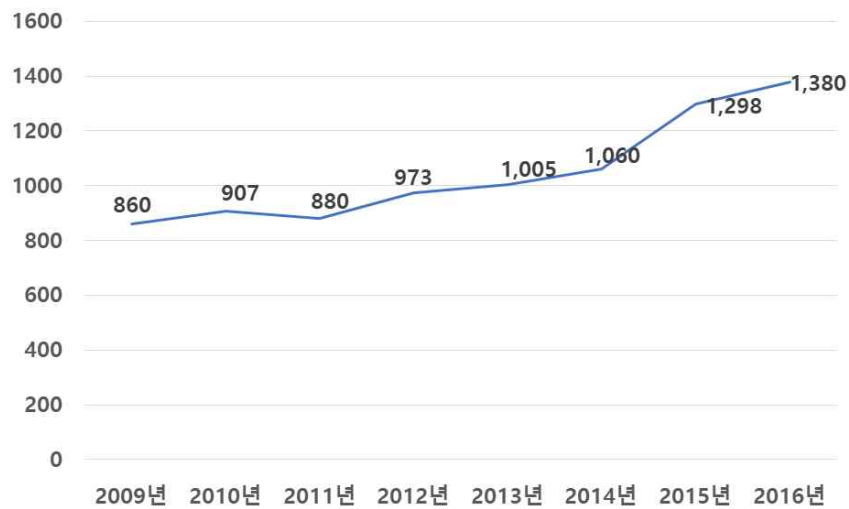
(단위: 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60	907	880	973	1,005	1,060	1,298	1,380

* 출처: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표 III-2〉 일본 연간 가구당 키위 소비금액 추이(2009~2016년)

(단위: 엔)



* 출처: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 키위가 많이 소비되는 상위 3개 지역은 교토시(京都市), 지바현(千葉県), 고치현(高知県)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1인당 연간 키위 소비량 평균은 6.14개로 집계되었으며, 교토시는 10.64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지바현과 고치현이 각각 9.73개와 9.34개를 기록하며 뒤를 이음

〈표 III-3〉 일본의 키위 주요 소비 도시

(단위: 엔, 개)

순위	지역명	연간 소비 금액	연간 소비 개수
1	교토시(京都市)	1,014	10.64
2	지바현(千葉県)	957	9.73
3	고치현(高知県)	880	9.34
4	군마현(群馬県)	733	8.05
5	이바라키현(茨城県)	690	7.77
6	아이치현(愛知県)	720	7.60
7	홋카이도(北海道)	695	7.58
8	아키타현(秋田県)	690	7.56
9	사이타마현(埼玉県)	698	7.45
10	이시카와현(石川県)	700	7.45

* 주: 순위는 연간 소비 개수 기준

* 출처: 총무성 통계국(統計局ホームページ)

2. 소비동향

□ 일본산 보다 수입산, 특히 뉴질랜드산 키위가 더욱 많이 소비됨

- 일본 국내에 유통되는 키위의 70 %가 뉴질랜드산으로 집계됨
- 뉴질랜드산 키위 주요 공급업체인 제스프리에 따르면 일본 내 제스프리 키위의 인지도는 2017년 기준 60%로 절반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뉴질랜드산 키위는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으로 보임
 - 제스프리는 일본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신제품 키위인 '선 골드(サンゴールド)'를 2012년 출시
 - 일본 내에 위치한 제스프리 계약 농가에서 특별히 재배되는 이 품종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단맛을 높인 품종으로 다양한 영양소가 다른 키위품종에 비해 많이 함유됨
 - 2017년 산케이(Sankei) 온라인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2012년 판매되기 시작한 '선 골드' 품종이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잘 맞아 현재 키위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키위가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

- 네이버 재팬 정보 큐레이션 사이트 마토메(まとめ)⁷⁾에 따르면 키위는 미용과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과일로 꼽히고 있음

7) matome.naver.jp

- 이외에도 Asa-Jo, 美BEAUTE, Socie 등 일본 여성 잡지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에 키위가 미용 및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기사를 다루었으며 개인 블로그, SNS 등에서도 키위의 이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음
- 특히 베이비 키위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더욱 선호됨
 - 크기가 작고 귀여운 외형 때문에 베이비키위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많음
 - 일본 내에서 베이비키위는 키위베리(キウイベリー), 미니키위(ミニキウイ) 등으로 불리기도 함
 - 베이비키위는 액티니딘(Actinidain), 식이섬유, 비타민C, 카로틴 등 미용과 체중 조절에 효과적인 성분을 일반 키위보다 많이 함유함
 - 액티니딘은 단백질 분해효소로 식이섬유와 함께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성분
 - 비타민C, 카로틴 등은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으로 노화방지와 피부미백에 효과적임
 - 베이비키위는 주로 미국에서 9~10월 경, 칠레에서 2~3월 경 수입되어 일본에서 유통됨

<그림 III-1>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키위



* 출처: 인스타그램 이미지 공유 사이트 Imgrumweb.com(www.imgrumweb.com), 온라인 과일 판매사이트(www.gift-senda.com)

□ 키위는 다양한 디저트로 만들어 소비

- 키위는 단맛과 신맛을 함께 느낄 수 있어 파르페, 케이크, 빙수 등 디저트에 주로 사용됨
- 일본에 위치한 대만 빙수 브랜드 ‘아이스 몬스터(ICE MONSTER)’는 2017년 여름 인기상품으로 키위빙수를 출시함
- 가정에서는 키위를 특별한 요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껍질을 까서 바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잼, 요구르트, 샐러드 등으로 만들어 먹기도 함
- 최근에는 셔벗 등 키위의 신맛과 색감을 살린 디저트로도 키위를 소비함

<그림 III-2> 키위를 이용한 디저트

	
<p>키위 찰쌀떡</p>	<p>키위 빙수</p>
	
<p>2색 키위 타르트</p>	<p>키위 셔벗</p>

* 출처: 일본 온라인 신문 NIKKEI STYLE(style.nikkei.com), 일본 음식 레시피 제공 사이트(cookpad.com)

IV. 수입현황

□ 일본 키위의 수입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17년 일본 키위 수입액은 3억 1,348만 달러(한화 약 3,374억 3,810만 원)로 전년대비 6.9% 증가함
- 수입량은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키위 총 수입량은 9만 2,981톤으로 집계됨

〈표 IV-1〉 일본 키위 최근 5개년 수입규모(2013~2017년)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액	206,556	214,709	223,550	293,157	313,481
수입량	58,747	65,061	78,648	93,192	92,981
단가	3.52	3.3	2.84	3.15	3.37

* 주: 일본의 HScode 0810.50(키위) 기준

* 출처: Global Trade Atlas

□ 키위 주요 수입국은 뉴질랜드이며 금액과 물량 모두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

- 뉴질랜드산 키위의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7년 전년대비 5.2% 증가한 2억 9,439만 달러(한화 약 3,168억 8,913만 원)를 기록함
- 2위, 3위 수입국인 미국(3%)과 칠레(2.2%)의 수입액은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임
 - 2017년 미국산 키위의 수입액은 956만 달러(한화 약 102억 9,064만 원)로 전년대비 52.1% 증가함
 - 동년 칠레산 수입액은 전년대비 86.8% 증가한 684만 달러(한화 약 73억 6,275만 원)를 기록
- 전체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임
 - 2017년 한국산 키위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20.8% 감소한 268만 달러(한화 약 28억 8,482만 원)이며 동년 수입량은 전년대비 14.9% 감소한 982톤으로 집계됨

〈표 IV-2〉 일본 키위 주요 수입국가(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5		2016		2017		2017/2016 증가율		2017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78,648	223,550	93,192	293,157	92,981	313,481	-0.2	6.9	100.0	100.0
1 뉴질랜드	76,411	218,761	88,097	279,827	85,222	294,389	-3.3	5.2	91.7	93.9
2 미국	1,836	1,104	2,067	6,286	3,874	9,561	87.4	52.1	4.2	3.0
3 칠레	342	3,464	1,874	3,661	2,898	6,838	54.6	86.8	3.1	2.2
4 한국	60	222	1,154	3,382	982	2,678	-14.9	-20.8	1.1	0.9
5 조지아	0	0	0	0	6	16	-	-	0.0	0.0

* 주: 일본의 HScode 0810.50(키위) 기준이며, 순위는 2017년 수입액에 따름

* 출처: Global Trade Atlas

□ 일본의 키위 주요 수입국 월별 수입규모

- 키위 수입액의 93.3%를 차지하는 뉴질랜드산의 경우 4월에서 11월 사이 수입됨
 - 특히 5월과 6월에 수입이 가장 많으며 2017년 기준 수입액은 각각 4,752만 달러(한화 약 512억 690만 원), 4,553만 달러(한화 약 490억 6,250만 원)로 집계
- 미국산 키위의 경우 10월에서 3월 사이 수입되며 2017년 기준 가장 수입이 많은 달은 11월과 3월로 나타남
 - 11월 수입액과 3월 수입액은 각각 247만 달러(한화 약 26억 6,164만 원), 212만 달러(한화 약 22억 8,448만 원)
- 칠레산 키위는 미국산이 수입되지 않는 4월에서 10월사이 주로 유통됨
 - 2017년 6월 칠레산 키위의 수입액은 180만 달러(한화 약 19억 3,966만 원)로 년 중 수입액이 가장 많음
- 한국산 키위는 11월에서 4월 사이 수입됨
 - 2017년 기준 한국산 키위가 가장 많이 수입된 달은 1월로, 수입액은 75만 7,000 달러(한화 약 8억 1,573만 원)로 집계됨

<표 IV-3> 일본 키위 주요 수입국 최근 3개년 월별 수입규모(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뉴질랜드	2017	-	-	-	33,375	47,523	45,532	27,396	24,878	18,984	10,873	9,777	392
	2016	-	-	-	40,059	49,008	72,857	39,108	25,262	15,808	16,624	15,882	5,250
	2015	-	-	-	36,142	66,329	64,406	41,151	33,597	20,692	14,608	16,046	1,318
미국	2017	843	1,726	2,124	213	-	-	-	-	-	445	2,471	1,738
	2016	851	1,232	745	-	-	-	-	-	-	156	930	2,343
	2015	-	165	361	-	-	-	-	-	-	5	85	489
칠레	2017	-	-	-	748	721	1,797	1,166	1,111	1,068	184	41	-
	2016	-	-	-	375	514	799	232	492	827	387	35	-
	2015	-	-	8	368	381	1,014	717	530	301	144	-	-
한국	2017	757	720	508	274	-	-	-	-	-	-	98	319
	2016	541	634	821	183	-	-	-	-	-	-	431	771
	2015	-	-	-	21	-	-	-	-	-	-	54	147

* 주: 일본의 HScode 0810.50(키위) 기준

* 출처: ITC Trade Map

□ 뉴질랜드는 일본인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품종의 키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품종을 개량하고 신품종을 발표하고 있음

- 최근 일본 내에서는 골드키위(제스프리 골드, 산골드 등 포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해당 품종은 다른 키위 품종보다 당도가 높아 인기가 있음

- 2018년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의 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산 키위 중 약 48%가 골드키위 품종으로 나타남
- 뉴질랜드산 키위는 슈퍼마켓, 대형마트, 농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됨
- 대표적인 뉴질랜드 키위 공급업체는 제스프리로 뉴질랜드산 키위를 일본에 독점으로 수출하고 있음
- 제스프리는 키위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일본 내 지사를 두고 일본 키위생산 농가와 계약을 맺어 직접 키위를 재배하기도 함

〈그림 IV-1〉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스프리 키위



* 출처: 일본 Global Fruits 홈페이지(<http://globalfruit.co.jp>)

V. 통관제도

□ 일본 키위 수입절차 및 규정

-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 규칙에 정하는 지정 해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수출국 유관기관에서 발행하여 병해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식물 검역 증명서”가 필요(국제 식물 보호 협약에 규정된 양식에 의거)
 - 식물 방역소에서 검사 결과 병해충 등의 존재가 판명된 경우에는 소독, 제거,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흙이 붙은 것은 수입 할 수 없음
- 식품 위생법에 근거한 후생성 고시 제 370 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 규정된 농약 잔류 기준에 유의해야함(주요 농약 기준치는 하기 키위 수입 조건 및 주요 농약 기준치 참조)
- 키위의 경우 지중해 광대파리, 퀴즈랜드 과일파리 등 과실 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지역에서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한국산 키위의 경우, 일본 내에서 별도의 격리 재배 및 수출국의 재배지 검사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본 내 일반 과일 검사 수준으로 수입이 가능함.(단, 멕시코산, 벨리즈산, 가이아나산, 수리남산 등은 별도의 검역조치가 요구됨)
- 키위는 일본 내 판매 시 ‘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법)’에 근거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라 일괄 표시를 해야함
 - 농산물은 ‘신선 식품 품질 표시 기준’, 가공품은 ‘가공 식품 품질 표시 기준’, 냉동 제품은 ‘과일 냉동 식품 품질 표시 기준’ 등의 품질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상기 법규에 따라 신선 키위의 경우 품명, 내용량(포장을 제외한 무게), 원산지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본 농림규격법 19조에 의거하여 농림부가 해당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키위 수입 조건 및 주요 농약 기준치

- 키위 관련 주요 농약 기준치는 하기와 같으며, 다음 주소에서 키위 농약별 잔류 허용 기준치를 검색할 수 있음

*公益財団法人 日本食品化学研究振興財団 http://db.ffcr.or.jp/front/food_group_detail?id=11100

- 규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잔류 기준치가 0.01ppm 이하임

〈표 V-1〉 일본 키위 주요 농약 기준치

품목명	기준치 (ppm)	설정 근거
γ-BHC	0.3	Bh2006
2,4-D	0.05	Bh2006
DBEDC	10	Bh2006
DCIP	-	
DDT	0.5	Bh2006
2,2-DPA	-	
MCPB	0.2	Bh2006
아이옥시닐	0.1	Bh2006
아쿠리나트린	0.1	Bh2006
아세타미프리트	0.2	Ab2010
아트라진	0.02	Bh2006
아라니카르브	2	Bh2006
알 드린 및 덜도린	0.05	Bh2006
이소키사티온	-	
이프로디온	5.0	Ag2006
이마자킨	0.3	Bh2006

* 출처: 일본 잔류농약 기준치 검색페이지(<http://db.ffcr.or.jp>)

□ 키위 관세율

- 일본 키위의 HS코드는 0810.50.000이며, 기본세율은 8%임
 - WTO 협정 세율은 6.4%로 WTO 관세율에 의거하여 한국산 키위의 경우 6.4%의 관세율이 부과됨
 - 뉴질랜드와 미국산 키위 역시 한국산과 동일하게 WTO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6.4%의 관세율이 부과됨
 - 반면 칠레산 키위는 칠레-일본 간 FTA 체결로 관세가 면제됨

□ 참고문헌

1	청과물 도매시장 조사-헤이세이 29년 연간 및 월별 결과(青果物卸売市場調査-平成29年年間計及び月別結果), 일본 농림수산성, 2018.04.27
2	키위과양 질환의 새로운 계통(Psa3)에 대해(キウイフルーツかいよう病の新系統 (Psa3系統)について), 일본 농림수산성, 2016.11
3	과일전국표준(果実の全国標準規格), 일본 농림수산성, 1997
4	참다래[한라골드] 일본 수출 매뉴얼, 한국 농촌진흥청, 2016.10

□ 참고사이트

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www.fao.org)
2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3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www.alic.go.jp)
4	일본 소비자청(www.caa.go.jp)
5	일본 총무성 통계국(www.stat.go.jp)
6	일본 식품화학연구재단(www.db.ffcr.or.jp)
7	일본 과일 관련 정보제공사이트 Kudamonavi.com(www.kudamonavi.com)
8	일본 Global Fruits 홈페이지(http://globalfruit.co.jp)
9	일본 식품관련 정보제공사이트 mitok(https://mitok.info)
10	네이버 재팬 정보 큐레이션 사이트 마토메(matome.naver.jp)
11	일본 라쿠텐 랭킹페이지(https://ranking.rakuten.co.jp)
12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유튜브(www.youtube.com/channel/UCgXWzi7UEZZyRqgOO5pPhQA)
13	인스타그램 이미지 공유 사이트 Imgrumweb.com(www.imgrumweb.com)
14	온라인 과일 판매사이트(www.gift-senda.com)
15	일본 온라인 신문 NIKKEI STYLE(style.nikkei.com)
16	일본 신문 오키나와타임즈(http://www.okinawatimes.co.jp)
17	일본 음식 레시피 제공 사이트(cookpad.com)